

헌법재판관 후보, 국민추천 받는다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중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을 위한 인선 절차에 돌입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지명' 료인 신임 헌재 재판관 후보 선정을 위해 6일부터 16일까지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적합한 인물을 추천 받는다

이는 대법원장의 재판관 지명의 절차적 투명성과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앞서 대법원 측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천거인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천거는

오늘부터 16일까지 재판관 천거 받기로 후보추천위 등 의견수렴 절차 첫 실시 '대법원장 지명' 없애고 각계 의견수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하며, 우편 또는 대법원을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천거 기간이 끝난 후에는 심사 등의 여부를 확인한 뒤 이에 동의한 피천거인 명단과 주요 경력, 재산 등 관련 정보를 오는 24일께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25일부터 8월3일까지 심사 동의자에 대한 법원 내·외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재판관후보추천위는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심사대상자에 대한 재판관 적격 여부를 심사,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후보추천위는 법원 내부 인사 9명과 외부 인사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원으로 추천 받은 후보 중 적임자로 판단한 인사를 수일 내에 신임 재판관으로 지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번 헌재 재판관 인선

부터 대법관 후보 선정 절차와 같은 의견수렴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헌법상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지명하도록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지명 전 인사청문회를 요청한다고 돼 있을 뿐 지명 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명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올해 새롭게 후보추천위를 설치하고 후보자 천거 및 공식적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했다"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현재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가 재판관에 지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

태국 소년들 잠수훈련 돌입...곳곳 험난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의 동굴에서 실종됐다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발견된 소년 12명 및 코치 1명이 탈출을 위한 잠수훈련을 시작했다.

구조 당국은 소년들이 험난한 동굴 물길을 잘 빠져나올 수 있을지 우려가 크지만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하면 동굴 내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어,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빠른 방법인 잠수를 통한 탈출훈련에 돌입했다.

5일 태국 현지 매체인 데네이션에 따르면, 소년 및 코치 등 13명은 전날부터 잠수마스크를 착용하고 숨을 쉬는 훈련부터 시작했다.

당국은 당초 우기가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소년들이 걸어서 동굴을 빠져 나오는 방법도 고려했지만, 우기가 오는 10월까지 계속돼 자칫하다간 동굴 내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이 계획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영도 할 줄 모르는 11~17세 소년들이 헤쳐 나와야 하는 동굴 내 물길은 쉽지 않다. 대형히, 구조대원 1000여명이 계속해서 동굴 내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배수작업을 하고 있어 수위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잠수를 통한 탈출에는 생존자 1명당 2명의 구조대원이 동반해 김잡이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들이 거쳐야 하는 물길 중 통로가 좁은 곳은 구조대원 없이 소년 스스로가 수영과 잠수를 해야 한다.

13명은 실종 열흘 만인 지난 2일 동굴 입구에서 약 5km 떨어진 고지대 '파타야 캄피치'에서 구조대에 의해 발견됐다. 정확하게는 파타야 캄피치에서 400m 더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언덕에 머물고 있다.

사우디 여성 운전자의 차량 방화 2명 체포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여성 운전자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남성 2명이 체포됐다.

4일(현지시간) 아랍뉴스에 따르면 사우디 서부 메카에서 지난 2일 여성의 차량에 방화한 혐의로 남성 2명이 체포돼 기소됐다.

피해 여성인 살마 알 사리프(33)는 6월 사우디에서 여성 운전이 허용되자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2일 새벽 이웃의 신고에 뛰쳐나가보니 그의 차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알 사리프는 여성 운전이 반대하는 남성들이 고의적으로 방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운전 시작한 이후 마을 남성들로부터 종종 비난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월급 절반을 나를 일터에 데려다주고 나이트 부모님들 이동을 돕는 운전기사에게 썼다"며 "그런데 운전을 시작한 첫날부터 남성들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운전을 금지해 비판을 산 사우디는 지난해 국왕 칙령을 통해 여성의 운전을 허용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24일부터 여성의 운전이 가능해졌다.

이후 면허를 딴 여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이 차를 몰 수 있게 됐지만 이슬람 강경주의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여성 운전 허용은 최악이며 여성을 표적으로 한 범죄를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우디의 왕위 계승 서열 1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작년 10월 2030으로 불리는 사회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파키스탄서 폭우로 14명 사망·19명 부상

파키스탄의 동부 편잡 주와 북서부의 카이베르 파크툽크와 주에서 3일~4일에 걸쳐 퍼부는 폭우로 인해 14명이 목숨을 잃고 19명이 부상당했다고 정부 관리들이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파키스탄 국립재난관리국(NDMA)은 이 날 성명에서 3일 퍼붓기 시작한 폭우가 계속되면서 편잡주가 최악의 피해를 입었으며 사망 12명, 부상 17명이 발생했고 집 한채가 빗물로 인한 급류에 떠내려갔다고 밝혔다.

카이베르 파크툽크와 주에서는 이들 동안 계속된 폭우로 곳곳이 파괴된 가운데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관리들은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우는 지붕이 무너져 압사한 경우와 감전사라고 말했다.

그러나 14명이 죽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편잡주에서는 이미 이곳에서 사망자 1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말하고 있다.

재난본부는 저지대의 폭우는 이미 홍수로 이어져 편잡 주의 여러 곳에서 홍수신고와 구조대 파견이 이뤄졌으며 재난 당국 지시에 따라서 배수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상 당국은 이번 폭우 사태는 5일이 지나야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아동수당 신청 접수 2주만 152만명 넘어

만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 아동이 접수 2주 만에 152만명을 넘어섰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집계된 아동수당 신청 아동(신청 진행 포함)은 152만5901명(120만581가구)이었다. 72.4%(110만481명·87만3290가구)가 온라인으로 신청했다.

전체 신청 대상자 253만명(198만 가구) 가운데 60%를 조금 넘는 아동이 신청했다.

복지부는 부모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9월21일 첫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0~5세 자녀 한명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됐다. 올해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당은 국외 결정에 따라 가구 월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3인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더한 금액이 월 1170만원 이하다.

아동 보호자나 대리인(보호자 친족, 시설종사자 등)은 복지포 누리집(www.bkjiro.go.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해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가는 게 좋다.

뉴스



갈매기의 목욕탕 5일 오후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마을 인근 바닷가에서 갈매기 한 무리가 목욕을 하고 있다.

상포지구 논란 '전 여수시장·시 공무원' 무혐의 결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김광수)은 여수시 상포매립지 수사 결과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시 공무원 4명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여수시 민간체로부터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여수시장 및 관계 공무원 고발장'이 접수돼 3개월간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수사했다.

시민단체는 주철현 시장의 5촌 조카사위인 모 개발업체 대표 김 모(48) 씨가 사들인 상포지구 매립지의 준공인가 조건을 전담도와 협의해 변경해야 하는데, 여수시장이 권한으로 대폭 축소했다고 고발장에 썼다.

또 김씨가 상포지구 도로를 부실 공사했는데도 시 공무원들이 감독을 소홀히 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고발인 및 공무원 등 관련자 조사결과 준공인가 조건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축소 내지는 변경하는 것은 여수시장의 재량 범위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실 공사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 및 방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횡령) 등으로 개발업체 대표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씨에게 공사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시 공무원 박 모 씨는 같은 달 3일 불구속기소 해 현재 재판 중이다.

검찰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중인 개발업체 이사 박 모(40) 씨를 지명수배하고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여수시민협회는 지난 4월 10일 순천지청에 '상포지구 매립지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여수시장 및 관계 공무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머릿에는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검진기일이 혼잡하다면,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

[전화번호 129] | [고객센터 1577-1000]